

정책브리핑



지난해 aT센터에서 열렸던 '2017 농식품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 현장 모습. /농식품부

농식품부·aT,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상담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국내조정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초청된 외식업계 바이어 20개사와 국내 외식기업 18개사가 상호매칭해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바이어들은 현지에서 외식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 외식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우량업체 대표들이다. 초청기간 동안 바이어들은 외식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한 시스템과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우리 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바이어 중 중국 베이징과 하북성에서 다수의 외식업체를 경영하며 하북성 경영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귀영화 하북난백문화전보유한공사 이사장은 "한국 특유의 세련된 레스토랑과 커피 체인점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좋은 사업 협력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현장노동청 10곳 설치... 국민 목소리 경청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제2기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춘천 등 9개 도시에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현장노동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의 운영기간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은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이홍씨 등 3개팀 5명 '젊은 건축가상'

올해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수상자에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 김이홍, 남정민 등 3개팀 5명이 선정됐다. 이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상해 온 상이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주호(34), 임지환(34), 조성현(36) 등 30대 건축가들로 이뤄진 경계없

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는 부동산 개발 논리에 대응해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완성도 높은 해결방안과 결과물을 보여줬다. 건축가 김이홍(38)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세심한 관찰, 개념 설정과 구축의 경계를 오가는 집요한 작업 과정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건축가 남정민(41)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경계면과 그 사이 공간에 대한 해결책을 공업화된 단위 개체로 구축해 보여줬다. /오진희 기자

해수부, 美 등 현지 3곳에 '수출 지원센터'

정부가 해외 현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확대에 나섰다. 미국 동부, 태국, 말레이시아에 3개소를 추가 개설해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수산물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관련 법률서비

스 등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국 상하이, 칭다오,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대만 가오슝, 미국 LA, 일본 도쿄 등 5개국에 7개소의 수산물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미국 뉴저지 수산물수출지원센터는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한국 수산물 수출을 돕고, 서부의 LA 수출지원센터와 협력해 한국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부동산보유세 얼마나 세질까 22일 개편안 공개·정책토론회

종합세율·공시지가 조정 등
재정개혁특위, 28일 최종 확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첫

토론회를 통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야 당의 반발을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지가 인상 등의 절충안이 접쳐졌다.

그러나 세율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오는 9월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

재판거래 의혹 등 특수 1부에 배당
법관 13명·전 행정처 차장 등 소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와 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뉴시스

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내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이법종 기자 joker@

APEC 17개국 해양쓰레기 해결 맞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모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한다. 앞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이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 노보텔에서 'APEC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이런 교육훈련은 칠레, 페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APEC17개 회원국의 해양쓰레기 담당자 및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은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해양쓰레기 등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훈련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쓰레기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참가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모두아 봉사대 등과 함께 해양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제나 잼벡(Jenna R. Jambeck) 교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이해관계자별 해양쓰레기 대응정책,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 등에 대한 발표 및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강연자들은 분과별 좌장으로서

오늘부터 관리역량강화 교육훈련
세계적 전문가들 강의... 지식 공유

논의를 이끌고, 각국 대표들은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론 강의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동향, 폐어구 관리정책 등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세플라스틱과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에 피해를 끼치는 등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